



# 모든 시민이 민간소방봉사자 되어야

## 숲 속에 뱀이 있다

겉으로 보면 숲 속은 아름답기 그지없다. 하지만 숲 속엔 무서운 뱀이 있다. 안전한 곳에도 실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뜻이다.

위험은 알잡아 보는 데서 커진다. 위험은 잠복성이 강하다. 위험은 아예 짝을 도려내야 한다. 위험은 한눈 파는 데서 생긴다. 껍질을 깨지 않고서는 밤을 먹을 수 없다. 위험은 위험을 없애지 않고는 결코 제거되지 않는다.

예방만이 위험을 없애는 지름길이다. 有備無患이란 말과 서로 통한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이미 옛날 옛적에 말했다. 「예방은 치료에 앞선다」

예방이 온전하면 몸에 병이 생기지 않는다. 「예방의학」이란 말이기도 하다. 요새는 예방공해·예방법학 등의 용어가 번지고 있다.

한 영화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



오 소 백  
<한국홍보연구소장>

을 주고 있다. 백층짜리 초호화판 빌딩이 몇 년에 걸쳐 세워졌다. 드디어 이 빌딩의 준공잔치가 열렸다. 많은 축하객들이 모여 술잔을 돌리고 있었다.

이때 느닷없이 “불이야!”하는 소리가 들렸다. 준공잔치는 삽시간에 수라장이 되었다. 몇 년에 걸쳐 지은 빌딩은 하룻밤 사이에 몽땅 다 타버렸다.

불은 왜 일어났는가? 한 가닥의 전기합선으로 생긴 것이다. 가장 좋은 자재로 지은 1백층 빌

딩이 아닌가. 하지만 오직 한 가닥 전선만이 불량품이었던 것이다. 한 가닥의 불량전선이 백층의 빌딩을 삼켜버린 셈이다. 이 건물은 층층마다 군데군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셈이다.

안전은 결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제 때에 위험스러운 곳을 미리 막아주어야 한다. 우리는 위험이 일어났을 때, ‘아차’한다. 그러면서도 여느 때에는 적당히 넘겨버린다.

대연각호텔화재며 독립기념관화재 등의 원인도 예방이 소홀한 데서 온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난 큰 불이 아니다. 제 때에 점검을 했으면 그런 사고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들은 뻔히 아는 일이면서도 번번이 실수한다.

## 화근은 위험 앞보는 버릇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불은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불은 우리 생활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불은 고마운 존재다. 불은 우리들에게 고마운 존재이면서도 위험을 머금고 있다. 불을 잘못 다루면 순식간에 재산과 생명을 빼앗긴다.

원자력 발전소는 산업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엄청난 도움과 함께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몇몇전, 소련의 원자력발전소 폭발이라는 세계적인 사고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산업·경제는 엄청나게 발전했다. 산업발전의 반가운 현상과 더불어 걱정도 커졌다. 산업발전에 필요한 전기·유류·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의 급증으로 이에 따른 위험도도 높아졌다. 통계를 보면 1974년 이후 10년 동안에 화재발생률은 219%가 증가했다. 화재의 원인은 전기, 유류, 담배 불, 어린이 불장난의 순위로 되어 있다.

근년에 와서 전기로 인한 화재율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건 유류 화재다. 유류화재의 원인은 석유 콘로나 난로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어른들의 담뱃불이나 어린이들의 불장난으로 일어나는 불도 만만치 않다.

총괄해서 말하면, 이러한 화재의 약 90% 이상이 사람들의 무관심과 부주의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화재의 敵은 한마디로 「무관심」과 「부주의」에 있다.

무관심은 일종의 게으름이며 전망증이다. 하지만, 달리 보면 보살핌의 결핍이기도 하다. 아기는 마음이 없는 데서 전망증이 생긴다. 점검하는 마음이 없는 데서 전망증이 생긴다. 우리들의

생활이 편해지면서 마음의 나사가 풀린 탓이다. 부주의는 알보는 데서 생긴다. 한눈을 파는 데서 일어난다. 불을 대할 때, 먼저 위험을 생각해야 한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무관심과 부주의를 없애는 오직 하나의 방법은 버릇이다. 불을 대할 때는 정신을 가다듬는 습성을 들여야 한다. 무관심이 습성이 되거나 부주의가 습성이 되면 늘 위험을 벗어날 수 없다. '불'하면 정신을 가다듬는 습성을 들이기만 하면 된다. 습성은 한번 들이기만 하면 자동 안전판이나 같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다. 위험을 감시하는 버릇을 들이면 자동적으로 안전이 보장된다.

### 모든 시민이 민간소방봉사자

올해는 88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린다. 세계의 벗들이 한마당에 모인다. 나라 안팎의 손님들이 들끓을 것이다. 손님을 대하는 곳마다에 화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화재는 예고 없다'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화재는 분명히 예고가 있다. 위험이 폭발하기 까지는 과정이 있다. 위험으로 달리는 이 과정을 우리들이 망각하고 있을 뿐이다.

올림픽 경기장이나 선수 및 관계자의 숙박시설은 관계기관에서 철저히 관리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사람의 출입이 예상되는 호텔·백화점·영화관·식당·유용가 등 위험관리에도 주의깊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험방지는 관계기관이나 관계자들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도 없다. 시민의식의 무장없

이는 화재의 방지는 하늘의 별따기다. 모든 시민이 민간소방봉사자의 마음을 지녀야 한다. 시민들의 눈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시민들이 조금만 관심을 지니면, 엄청난 화재를 거뜬히 막아낼 수 있다.

4천만이 민간외교관이 되는 것도 소중하다. 그러나, 더불어 4천만이 민간소방봉사자의 마음을 지닐 때 우리는 일등시민이 될 것이다. 자원봉사자란 올림픽 경기장에만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경기장 밖 가는 곳 마다에 자원봉사의 마음을 지닌 시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 화협의 역할

여기서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민간소방봉사자들의 방화의식을 이끌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 주도에서 민간기구 주도의 전환기에서 이러한 일을 감당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란 그리 흔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아직 국내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수준높은 전문가나 홍보기구가 절대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그동안 화협이 축적한 방재기술과 각종 화재예방용 교육 교재 등을 널리 활용하는 것은 좋은 일일 것이다. 더욱이 화협의 안전점검업무를 통하여 올림픽관련시설에 대한 화재발생요인을 발견, 제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높은 방화의식을 갖춘 민간소방봉사자, 화협과 같은 전문방재기관, 소방당국이 삼위일체가 될 때 88서울올림픽은 완벽한 세계인의 축제가 될 것이 확실하다.◎